

III. 고레스 칙령과 유대성전1)

A. 551B.C.-- 고레스 1년, 유명한 그의 성서 칙령

메대-페르시아 역사의 이 시점에서 고레스의 유명한 종교적 관용에 대한 성서의 칙령을 다루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바빌론이 고레스에게 함락된 이후에 그 칙령을 내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레스가 메대-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한 첫 번째 해인 기원전 551년, 이 때를 기점으로 칙령이 반포된 날짜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첫 번째로, 메디아의 군대가 아스티아게스를 버리고 고레스와 페르시아 군대를 따랐을 때, 그들은 고레스에게서 그들에게 페르시아 민족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의 관대한 정책과 종교적 자유에 대한 관용을 재빨리 인식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성경에 실제로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는 곳은 결코 바빌론의 함락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고레스의 칙령에 대한 성서, 역대기하 36:22-23, 에스라 1:1-4 그리고 에스라 6:3-5에서 네 번 언급한 것의 맥락을 조사해보라. 세 번째로 고레스는 종교적 관용의 칙령을 내리고 여러 나라의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는 제국의 규모를 빠르게 늘릴 수 있었다. 그 결과, 그의 동정어린 통치는 그에게 전투없이 메디아와 바빌론의 도시 모두를 안겨주었다. 넷째로 '고레스의 원년'은 그가 바빌론을 점령한 첫 번째 해를 의미하는 정도로 결코 표현되지 않는다. 다섯째, 히브리 성서가 고레스를 가리킬 때, 결코 그를 '바빌론 왕'이라 부르지 않고 항상 '페르시아 왕'으로 부른다. 고레스의 그 칙령은 메대-페르시아의 통치에 따라 날짜가 정해졌다.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 역대기하 36:22-23; 에스라 1:1-4. 다니엘의 예언에 나오는 두 번째 왕국은 메대-페르시아 제국(다니엘 2:39a; 7:5; 8:3-4; 11:2)이기 때문에 '고레스 원년'은 그가 이들을 공동으로 통치하던 때를 가리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다니엘 10:1은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바사 왕 고레스 제 삼년"에 일어난 것으로 적고 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문헌은 예루살렘과 신전의 귀환과 복원이 역대기하 36장, 에스라 1장과 6장에서 주어진 고레스의 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한다. 에스라 4:5에 따르면, 유대인들을 적대하는 자들은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성전을 짓는 것에 훼방을 놓았다.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바빌로니아의 통치보다 메대-페르시아의 지배에 이해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독자들이 '고레스 원년'이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메대-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지칭하고, 기원전 551년은 성경에서 언급된, 그 유명한 칙령을 반포한 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유명한 고레스 실린더는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한 뒤 쓰여졌으며, 역대기하 36장, 에스라 1장과 6장의 성서 칙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유사점은 명백하다, 고레스가 왕위 초기부터 일관된 종교적 관용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B. 유대교에 관한 고레스 칙령

그가 메대-페르시아를 통치한 첫째 해(기원전 551년), 고레스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민족과 그들의 성전을 복원하도록 명령하는 칙령을 내렸다. 성서는 에스라서에서 고레스의 유명한 칙령을 두 번 전하고 있다.¹⁾ 첫 번째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 그것은 전령에 의해 백성들에게 발표된 대로 왕실의 선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레스가 신전의 재건을 명령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모험에 기여하도록 초대받았다. 재건하라는 고레스 칙령에 대한 히브리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인용된다.

1) 유진 폴스티히, [포로기 및 회복기와 역사의 조화], 성경과학연구소 2020, 5장 pp102-110 참고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 1:2-4

에스라 1:1는 그 칙령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해는 히브리 식으로 계산하지만 페르시아 식 고레스의 즉위년이다. 이로써 기원전 551년 고레스의 칙령이 메대-페르시아 제국 전체, 즉 바빌론과 이집트를 제외한 '세상 모든 나라'에 내려지게 되었다.

에스라 1:1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했을 때, 이것이 70년 억류의 실제 이행에 대한 초기 단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에스라 1:1은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고무시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이러한 동요는 물론 고레스가 이사야가 자신에 대해 말한 신탁을 175년 이상 미리, 완전히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Isaiah 44:24-45:4, 12-13; 46:10-11).

에스라서에는 위와 같은 포고령의 대체 형식이 들어있다. 이 포고령은 아람 어로 쓰여진 아람문서들의 모음(에스라 4:8-6:18)의 일부분이다. 아람어 버전의 고레스 칙령은 에스라 6:3-4에 기록되어 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십 규빗으로, 너비도 육십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 1장의 칙령과 32년 후 다리오 1세가 기원전 519년 액바타나에서 발견한(에스라 6:2) 사본과의 비교한 결과 전자는 공개 선언이었지만, 후자는 문서보관소에 보관해야 할 보다 상세한 공식적인 사본이었다. 에스라는 또한 느부갓네살이 빼앗은 성스러운 그릇들의 귀환 소식을 전하며²⁾(에스라 1:7-11) 이 프로젝트는 '유다의 왕자' 즉, 왕가의 일원인 세스바살의 책임이었다고 말한다. 모든 가능성으로 볼 때, 세스바살은 역대기상 3:18에 여호야긴의 아들로 수록된 Shenazar와 같았는데, 두 이름 모두 바빌로니아 이름인 Sin-ab-usur와 비슷하다.³⁾

칙령에서 알 수 있듯 고레스는 복구 정책에 전념했다. 정복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인과 바빌로니아인들과는 달리 고레스는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었다. 그의 정책은 다신교의 종교 정책이었다.

고레스의 새로운 정책은 바빌로니아,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환영받았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기원전 723년 사마리아 멸망 이후 이스라엘에서⁴⁾ 그리고 기원전 588년 예루살렘의 파괴 이후 유다에서 망명해왔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페르시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신이 내린 포로 종식의 징표로 보았다. 그들은 예레미야 25:12-13; 50-51과 같은 바빌론 몰락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스스로를 위로했다. 또한 이사야는 그들에게 고레스가 신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임무를 위해 신이 임명한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이사야 45:14).

고레스는 그가 유대인에게 내린 칙령에서(에스라 1:2-4) '하나님 여호와'를 '세상 모든 나라'를 그에게 주었으며 '그에게 예루살렘에 집을 지으라' 요구한 신(에스라 1:2)이라 나타냈다. 고레스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175년을 미리 내다보고 쓴 이사야 예언서를 직면함으로써 였을 것이다. 적어도 고레스 3년까지는 살았고(다니엘 10:1), 70년 만의 이스라엘 귀환을 예언한 예레미야 예언서의 이행을 크게 염려했던 다니엘(다니엘 9:2; 비교, 예레미야 25:11-12)이 이사야의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를 그 페르시아 군주에게 제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잃어버린 지 오래된 많은 역사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요세푸스는 "고레스가 이것을 읽고 신의 힘을 존경했을 때, 그렇게 쓰여진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가 사로잡은 진지한 욕망과 야망"이라고 말한다. **유대고대사 XI.i.2.** '제 2의 이사야'에 대한 높은 비판적 견해와 예측적 예언의 불가능성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요세푸스의 증인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유가 있다.

1. 성전 재건축에 기여한 고레스

고레스의 법령은 개인적으로 여행 선물과 제 2 성전 재건을 위해 자의로 공물을 주며 유대인들을 보내라고 그들의 이웃들에게 명령했다. 에스라는 고레스가 히브리 성전을 재건하는 데 왕실 국고에서 기여했다고 쓰고 있다. 이 공헌은 후에 다리오 1세 때 엑바타나의 요새에서 아람어로 된 메모가 발견되며 검증되었다. 그 메모는 에스라 6:3-5에 기록되어 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
는 육십 규빗으로, 너비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
로 옮겼던 하나님의 서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
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만큼 위대한 정복자가 유대인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칙령은 놀랄만큼 온건한 그의 일반 정책의 실례일 뿐, 그의 후임자들 대부분이 뒤를 이었던 정책이다. 고레스는 고대에 진정으로 계몽된 통치자들 중 하나였다. 아시리아인과 바빌로니아인들처럼 잔혹하게 민족 정서를 짓누르고 추방하는 대신 가능한한 대상 민족이 제국의 틀 안에서 문화적 자율성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위해 공헌했다는 사실은 메디아 왕 다리오(아스티아 게스)와 에스더, 모르드개, 다니엘,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등 한 명이상의 사람들을 통한 영향력의 결과였을 수 있다. 그것은 요세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유대고대사 XI.i.2.** 또한 고레스는 불과 12년 전에 일어난(기원전 563년 + 12 = 기원전 551년) 최초의 부림절을 알고 있었고 전멸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을 돋고셨을 것이다.

이전의 역사학자들은 이 단순한 성서 칙령에 의심을 품고 접근했다. 일부 작가들은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신에게 어떤 종류의 예우를 바쳤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유형의 칙령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⁵⁾ 그는 페르시아의 신 아후라 마스다를 숭배하는 페르시아인이었으며, 유대인의 신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오늘날 학자들은 고레스 시대의 중요 문서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이후 이런 종류의 의문들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1차 자료들은 페르시아 군주들이 선전술의 달인 이었으며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보니두스 연대기, 고레스 실린더, 그리고 '나보니두스에 관한 이야기가 적힌 비문'과 같은 기록들은 성서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시대의 고레스의 칙령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들은 그 유명한 성서 칙령이 고레스의 바빌론 유수와 관련하여 내려진 법령과 어떻게 유사한지를 이야기한다.

2. 고레스의 칙령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

유대인들은 고레스의 왕명에 열렬히 반응했다. 아스티아게스가 타도된 다음 해(기원전 550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예레미야의 충고를 따랐던 사람들은 유배 중에 집을 짓고, 과수원을 가꾸고 사업을 벌여 바빌로니아에 뿌리를 내렸다(예레미야 29:5ff). 바빌로니아의 사업 명판은 유대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고, 이 시기에 바빌로니아에서 좋은 지위를 누렸음을 나타낸다. 그 결과 번영한 직업을 가지고, 바빌로니아의 무역으로 편안하게 정착한 대다수의 유대인들로서는 그들의 황폐한 조국을 재건하는 육체적, 경제적 고난에 직면하기 위해 '시온주의자들'의 무리에 합류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귀환을 결심한 사람들은 가난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유배지에서 쌓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과거 바빌론의 은인인 아스티아게스가 여전히 왕인 동안, 유대인들은 바빌론과 메디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인 기원전 551년 바빌로니아를 떠나 메디아궁정에서 일했다. 고레스 휘하에서 몇몇 유대인들은 성전의 식기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 후 메데스와 바빌로니아인들 사이에 태도 변화가 있었다. 바빌론 왕 나보니두스는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몇 년간 아라비아로 이주했다. 고레스는 그 지역에서 지배적인 인물이 되었고, 아마도 나보니두스에게 이런 압력을 가한 사람일 것이다. 메데스와 바빌로니아인 사이의 이러한 긴장된 관계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귀환할 사람들을 돋기위한 상당한 선물들(에스라 1:6)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간 식기들을 고레스가 돌려놓음(에스라 1:7-8)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되지 않는 작은 무리들이 고향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C. 550 B.C.--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제사장들의 귀환

성서의 에스라 2:64-65는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개, 빌산, 미스발, 비그왜, 르훔 바아나와 같은 이스라엘 제사장들 하에 돌아온 사람들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요" 바빌론,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 2:3063에 열거되어 있다.⁶⁾

고레스의 칙령 당시, 히브리인들은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바빌로니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아스티아게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 에스더 9:20이라는 언급을 하는 에스더서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명백하게 그런 경우인 것 같다. 길고 위험한 여정은 아마도 4개월간 지속되었을 것이다. *비교* 에스라 7:8-9.

1.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한 팔레스타인의 파괴

망명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왔다(에스라 2:1). 대체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성읍들의 완전히 황폐한 모습들에 충격을 받았다. 기원전 590년에서 기원전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유다를 공격했을 때, 유다의 도시 전체에는 상당한 파괴가 있었다. W.F. 올브라이트는 고고학적 발굴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유다의 상당수의 성읍과 성곽이 전부 또는 일부 발견되었다. 많은 유적들이 마지막으로 파괴된 대략적인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세심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는 획일적이며 결정적이다. 기원전 6세기 초에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 다시는 점령당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파괴되어 지층의 급격한 변화와 도시적 사용 목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의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오랜 기간의 방치 이후 재점령되었다. 포로기 동안 유다의 성읍이 계속 점령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⁷⁾

보다 저명한 가문들이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 성전 터에 와서 반 세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일으킨 잔해를 보자, 그들은 주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금 육만 천 다릭과 은 오천 마네'를 공사하는 금고에 주었다. 이것은 에스라 2:68-69에 적혀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육만 천 다릭이요 은이 오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더라

그리스 동전 드라크마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다릭 *daric*' 혹은 '드램 *dram*'이다(킹 제임스 성경, KJV).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기원전 330년 경) 이후까지 이 그리스 동전의 사용이 팔레스타인과 그리스의 영토가 아닌 곳에서 통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과거의 비판적인 학자들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러한 참고문헌과 더불어,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모두 기원전 250년 까지 살아있지 않았던 '연대기 작자' 한 사람이 쓴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 하기 위해 에스라 7:70의 언급을 채택했다.⁸⁾

하지만 W. F. 올브라이트는 고고학적 증거가 기원전 5세기 중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아테네의 드라크마가 표준화폐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현재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⁹⁾ 예루살렘 남쪽으로 수 마일 떨어진 벤술의 출토물에서는 1931년에 페르시아 규모에 속하는 드라크마 6개가 발굴되었고¹⁰⁾ 아테네 드라크마는 현재 유다의 아람어 이름인 'Yehud'가 새겨진, 최근 발견된 고대 아테네 동전의 모조품에서 4세기에 현재 알려진 유대 국가의 공식 화폐가 되었다.¹¹⁾

2. 귀환 후 유다의 첫 통치자 세스바살

유다 왕자 세스바살은 귀환 후 첫 번째 유다의 통치자였다. 세스바살을 뜻하는 아카드어는 '샤마시(아카드의 태양 신)가 자식을 지켜주었다'라는 뜻의 Shamash-apal-usur이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동안 성전 보물에 대한 책임을 맡았으며(에스라 1:11; 5:14) 그는 아마도 역대기상 3:18에 나오는 여호야긴의 아들, 세낫살일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세스바살의 정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부는 에스라 1:1에서 이름 붙여진 세스바살이 첫 번째 귀환을 이끈 다윗 가문의 스룹바벨(에스라 2:2)과 동일인물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스룹바벨은 예수아 옆에 있던 지도자였다. 그러나 에스라가 재건 기간동안 스룹바벨이 다윗 자손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는 반면, 우리는 세스바살이 적극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고레스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으로 세스바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곧 사망했을지도 모르며, 아마도 그의 중년의 친척인 스룹바벨이 그 통치권을 이어받았을지도 모른다. 예언자 학개는 통치자로 스룹바벨을 언급하고 있다(학개 1:1, 14).

3. 예루살렘의 재단 재건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기원전 549년) 유다 성읍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에스라 3:1). 고위 제사장 예수아와 다윗 가문의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에스라 3:2-3).

성전 터에서 제단 건설 완공은 초막절로 끝이 났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매일 요구되는 의무대로 날마다 바치는 번제를 규례에 따른 정수대로 바틸 수 있었다(에스라 3:4). 초막절 이후 그들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에스라 3:5). 그러므로 에스라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 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에스라 3:6.

성전의 재건을 위해 레바논에서 옵바 해변으로 백향목을 가져가기 위한 준비는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이뤄졌다(에스라 3:7).

그것은 쉽사리 명료해지지는 않지만, 첫 번째 제물의 날짜는 논의된 연도를 확인하는 두 개의 연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티슈리 월 10일에 제단의 헌납식은 모세의 풍습처럼 타연스럽게 토요일에 일어날 것이다(레위기 8:32). *priestly order serving은 여다야였다*(에스라 1:36). 잠재적인 연도는 주일, 제사장 구분과 함께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이 샘플 날짜들은 포로들의 첫 번째 귀환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린 3년 째가 아닌 메디아를 다스린 3년 째 해에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한다.

도해 XIV 스룹바벨 아래 성직자들의 선택사항

If year one is counted from Media/Persia rule (Ezra 3:1)

Yr. 1	Tishri 1	(Oct. 3, 551 B.C.)	Thursday	#22	Jehezekel
Yr. 2	Tishri 1	(Sept. 22, 550 B.C.)	Monday	#23	Delaiah
Yr. 3	Tishri 1	(Sept. 11, 549 B.C.)	Saturday*	#2	Jedaiah*
Yr. 4	Tishri 1	(Sept. 28, 548 B.C.)	Thursday	#8	Abijah

If year one is counted from Babylonian rule

Yr. 1	Tishri 1	(Sept. 10, 538 B.C.)	Thursday	#23	Delaiah
Yr. 2	Tishri 1	(Sept. 28, 537 B.C.)	Wednesday	#6	Mijamim
Yr. 3	Tishri 1	(Sept. 16, 536 B.C.)	Sunday	#9	Jeshua
Yr. 4	Tishri 1	(Sept. 6, 535 B.C.)	Thursday	#11	Eliashib

그 해 초에 다니엘이 제자 요한이 본 예수의 환상과 비슷한 환상을 보았을 때(요한 계시록 1:14) 그는 3주간의 참회를 하고 있었다(다니엘 10:1). 고레스는 천사에 저항하는 듯 했다. 그의 환상은 다음에서 일어났다.

니산월 3일 (기원전 549년 3월 20일) 토요일; 니산월 24일 (기원전 549년 4월 10일) 토요일 까지

다니엘의 환상에서 그는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다. 포로들이 그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그들이 당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들이 약 4개월 이후에 도착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에스라와 그의 지지자들이 그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에스라 7:8-10). 만약 그들이 첫째 달 말쯤 떠났다면 다섯 번째 달 말쯤 도착하여 한달 쯤 짐을 풀고 제단을 쌓게 된다.

D. 548 B.C.-- 성전 재건축의 시작

1. 레위인의 임명

귀환자들의 첫 번째 의무는 제 1신전이 파괴된 이후 중단되었던 성역의 설치와 레위기의 율법에 적힌 예배를 재개하는 것이었다(에스라 3:8-13).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온 지 2년 째 되던 해, 둘째 달인 지브월(기원전 548년)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나머지 그들의 형제들(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사로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이들)이 이십 세 이상의 레위사람을 임명하여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감독하게 하였다(에스라 3:8).

2. 토대를 깔다

에스라 3:8에서 성전의 토대가 완성되었다는 연대기적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 년 둘째 달에..." 건축업자들이 주의 성전에 기초를 다지고 기초공사를 완성했을 때, 이것은 찬사와 감사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제사장부터 사람들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이 위대한 이정표에 참여하였다. 일부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으며 어떤 이들은 우는 소리를 내었다. 사람들 사이 반응이 엇갈렸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사람들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
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
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3:10-13

이 연대기적 표기는 고레스 3년(히브리식 셈법), 즉 그들이 돌아온지 2년 째(기원전 549년)라고 언급한다.

E. 548 B.C.- 520 B.C.-- 적들이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다

성전의 토대가 완성됨에 따라, 신속한 건물 완공에 대한 전망이 보였다(에스라 3:8-13).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성전의 건축은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미뤄졌다 에스라 4:5. 이 기간은 히브리식 추정으로 대략 고레스 3년(기원전 549년)부터 다리오 2년(기원전 520년)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성전 공사 중단은 29년 동안 지속되었다(기원전 549년 + 30 + 기원전 520년). 에스라 4:2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 즉, 페르시아식 추정으로 기원전 519년이다.

시온으로 돌아오는 나머지 순례자들은 아마 처음에는 열광적이었을 것이지만, 낙담해야 할 이유들이 빠르게 찾아왔다. 대체적으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었다. 그 성전은 그 땅의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단되었다.

이들 적대자 가운데는 아시리아 왕 엣살하돈에 의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 그 동안 그들은 아시리아 황제 엣살하돈(기원전 681년 – 기원전 669년)과 아슈르바니팔(기원전 668년 – 기원전 626년)에 의해 외국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추방된 이교도 민족과 결혼했다. 그 나라는 황량했고, 유대인의 부재로 에돔, 모아브, 암몬, 필리스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중 무단거주자들이 유대 시골지역을 점령하여 이득을 보았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공공연히 적대적이었다.

1. 사마리아인의 반대

재건된 제단 주변의 단체생활이 시작된 후, 유대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한 사마리아인들 무리가 스룹바벨에게 다가가 족장들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에스라 4:2. 스룹바벨, 예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런 협력사업을 벌이기를 꺼려하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에스라 4:3.

사마리아인의 송배는 유대인의 송배와 일치되는 것 같았다. 역대기하 17:29-34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 야훼의 송배를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가지고 온 신들에게 더하여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 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숙곳브놋 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딥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 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고레스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책임을 그들에게 부여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사마리아인의 원조 제의를 거절했다(에스라 4:3). 남부 왕국의 부족들에게 포로기는 쓰라린 경험이었고, 독실한 유대인들은 그들 아버지의 우상숭배가 그것을 야기시켰다고 설득당했다. 따라서 귀환자들은 이교도의 관행에 의해 포로기 이후 국가가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 결정했다.

예상대로 사마리아인들은 거절 당한 후 적대적이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설 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가 다스릴 때까지 사업의 완성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에스라 4:5).

2. 다니엘의 기도가 고레스에게 영향을 주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 다니엘이 3주 내내 슬퍼했다는 것은 흥미롭다. (다니엘 10:2). 하브리 문헌에서는 예언자의 슬픔과 단식에 대한 이유가 쓰여있지 않지만, 이것은 기원전 549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건설이 중지되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들은 결과였음을 암시한다. 다니엘의 기도와 단식은 기원전 549년 니산월 4일부터 니산월 24일까지 21일간 지속되었다. 천사는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와 그의 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에게 간청했다. 일곱째 달이 되자 제단이 완성되고 공물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이 여정은 4개월이 걸렸다 (에스라 7:9-10).

만약 그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와 단식 이후에 바로 왕을 설득했다면 그들은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달에 이 여정을 하여 여섯 번째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데에 한달이 걸렸다. 다니엘의 단식은 그를 총애하는 고레스의 눈에도 띄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때 '바사왕국의 군주'들이 있었음을 나타낸다(Daniel 10:13). 아마도 성서를 공부하는 학생들 일부는 이것이 고레스와 그의 아들 캄비세스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서나 성서 이외의 증거는 없는데 이는 캄비세스가 바빌론을 다스린 왕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준다. 고레스는 마기족의 반란이 있던 때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죽음과 캄비세스가 이집트에서 벌인 군사행동은 마기족의 반란을 촉발시킨 두가지 두드러진 이유였다. 따라서 '페르시아 왕들'이라는 구절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와 메디아 사람 다리오, 즉 고레스의 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헤로도토스의 메디아 연대기에 따르면, 아스티아게스는 10년 동안 고레스의 궁전에 남아있었다. "아스티아게스에 대해서는 고레스가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았고 아스티아게스가 죽을 때까지 그를 자신의 궁전에 두었다" 헤로도토스 I.130. 아마도 고레스는 그가 영토를 넓히는 동안 아스티아게스로 하여금 제국의 일을 감독하도록 했을 것이다. 다니엘은 메디아 사람 다리오와 두루 일하였기 때문에, 다니엘 예언서인 다니엘 10:13(c.f. 다니엘 6:28)에 기록된 대로 '바사왕국의 군주'라는 구절에 다리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레스 대제가 아스티아게스의 왕국을 점령하자, 다니엘은 정계에서 은퇴했다. 다니엘 1:21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즉, 정치가로서 정치일을 계속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시피 다니엘서의 후반부 연대기적 진술은 고레스의 치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성전 건설은 진전에 방해를 받고 있었다.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X.xi.7에 의하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는 바빌론에 머무르다 그 후 그는 메디아, 헤흘타나로 가서 고풍스러운 탑을 세운 곳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3. 고레스에서부터 다리오로 건축이 끝나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성전건축이 중단된 기간을 알려준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놀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에스라 4:4-5. 이것은 건축 공정이 시작된 시점부터 다리오 1세 2년(기원전 520년)까지의 모든 날을 포함할 것이다. 베히스툰 비문에 따르면 바빌론은 기원전 520년 가을에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 1세에게 함락되었다. 그러므로 다리오가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칙령을 내린 것은 안식년이자 희년인 기원전 519년 봄이었다. 희년에 그 땅을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었다(레위기 25:28).

카미세스는 그의 아버지를 도와 바빌론을 통치하고 경험 많은 통치자가 되었다. 짧은 재위기간 동안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할 수 있었고, 기원전 526년에는 이집트의 수도 멤파스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캄비세스는 나일강의 첫 번째 폭포에 위치한 엘레판티네라고 불리는 섬에 위치한 유대인들의 정주지에 베푼 친절로 유대 역사에서 특히 기억된다. 이곳은 그 땅의 남쪽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배치된 군사 초소였다. 학자들은 이곳 유대인들의 기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 성전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람의 엘레판티네 파파리로부터 캄비세스가 이집트인들의 현지 성전을 파괴하는 동안 유대인들의 성전은 살려냈음을 암시한다.

'다리오 왕 14년, 타무즈 월'에 야호(야훼)의 성전 재건 허가 청원을 담은 편지에는 유대인을 향한 캄비세스의 호의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집트 왕국의 시대에 이 성전을 엘레판티네의 요새에 세웠는데, 캄비세스가 이집트에 왔을 때에 이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집트 신의 성전들을 모두 쓰러뜨렸지만, 이 성전을 훼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¹²⁾

이집트의 모든 것이 페르시아 군대에 정복되었을 때, 캄비세스는 바빌론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가 팔레스타인의 카르멜 산에 도달하였을 때 왕위를 찬탈하려는 자가 수사 성읍에서 일어나 제국의 왕위를 차지했다.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그 주장대로 그는 그 자신의 손에 그곳에서 죽었다. 헤로도토스는 캄비세스가 사고로 죽었다고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이리하여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의 삶은 끝이 났다.

1) 에스라 1:1-4와 에스라 6:3-5에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서뿐 아니라 그것은 역대기하 36:22-23에도 주어진다. 이 칙령은 에스라 1:1-3a와 동일하지만, 3b-4절은 에스라 1장의 칙령을 좀 더 길게 하고 추가로 덧붙인다. 에스라 6:3-5는 같은 포고령으로 보이지만, 당시 공식 언어였던 아람어로 쓰여 있다.

2) 고레스는 심지어 기원전 599년에서 기원전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가져온 귀중한 물품들을 돌려주기도 하였다. 필경사 에스라는 재건된 성전에서 쓰기 위해 신성한 집기들이 고레스에 의해 반환된 것을 알리고 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끈에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열 개요 그밖의 그릇이 천 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 1:7-11

5장- 주석

3) 에스드라스서와 요세푸스에서는 그 이름이 '사나스바살'로 나온다

4) 북부 왕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일부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돌려보낸 아시리아 왕 엣살하돈의 통치기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에스라는 이 요인을 에스라 4:1-3에서 암시하고 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판과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르 왕 예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훌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5) W. O. E. Oesterley 그리고 T. H. 로빈슨은 성경에 제시된 대로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성서 자료에는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빌로니아 연대기의 일부분인 바빌로니아 연대기, 그 유명한 고레스 실린더, 그리고 나보니두스 이야기 비문' 때문이다. Oesterley와 로빈슨의 의혹은 그들의 작품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발견된다. 이스라엘의 역사 (옥스포드,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1932), pp. 75, 81.

6)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름은 느헤미야 6장의 이름과 비교되어야 한다.

7) 윌리엄 F. 올브라이트, 팔레스타인 고고학 (하몬스워스, 미들섹스: Penguin Books, Inc., 1949), pp. 141f.

- 8) 로버트 파이퍼의 *구약성서 개론*(뉴욕, Harper & Row, Publisher, 1941), pp. 812f., 830.를 비교하라.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저자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작업에 늦은 날짜는 필요하지 않다. 사실 고고학적 발견은 정반대임을 시사한다.
- 9) 윌리엄 F. 올브라이트, "구약성서와 고고학," *구약성서 논평*에서 (필라델피아: Fortress Press, 1948), p. 154.
- 10) 올브라이트, 앞서 말한 책 중에, p. 227.
- 11) 올브라이트, 앞서 말한 책 중에, p. 154.
- 12) 제임스 B. 프리처드, 편집, *구약성서와 관련한 고대 공동 문서*(프린스턴, 뉴저지,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 1969), p. 492.